서 산 문 화 원

서산문화원보 **월간** 서산의 숨결 | 비매품(통권 제318호)

발행일 2010년 4월 10일 | **정기간행물 등록** 충남 라 1092 | **등록일** 1996년 5월 9일

발행인 이준호 | **편집인** 김영철 | **인쇄인** 이낭진

발행처 서산문화원 | **주소** 서산시 읍내동 516 | **전화** ☎041-669-5050

디자인 및 인쇄 서산인쇄공사(☎041-664-0001~3)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

제 318 호

소산의 숨결

2010.4. 10

서산문화원보(비매품) | 월간 소산의 숨결 | 정기간행물 등록 충남 라 1092(1996. 5. 9)

OPEN THE HOPEFUL FUTURE OF SEOSAN!

서산문화원

Contents

03 우리 현실에 영웅은 없는가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04 19世紀 海美 地方에서의 천주교 信俸 (조 광 / 고려대학교 교수)

08 4월의 표준영정 (이황 (李滉))

10 삼짇날이란?

12 고전 읽기의 즐거움 (문성환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15 한국의 대중음악 (최민우 / 대중음악 평론가)

18 펠트공예 (장옥경 / 펠트 강사)

20 마패 (김재신 / 서산시문화관광해설사)

22 흙빛문학회

24 홍성문화원이 소개하는 명소 (전용택 / 홍성문화원장)

26 계룡산 도자예술촌

29 봄철 밤하늘 별자리

32 문화원소식

33 시정소식

Caver Story

표지디자인 _장옥경의 펠트공예 '선인장'

한땀 두땀 꼬매어 가는 바느질을 통해 일상생활속
다양한 생활소품을 만들수 있는 매력적인 공예이다.

서해안의 중심도시 서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서산**으로 오세요!

해미읍성

벌천포해수욕장

보원사지

마애삼존불상

철새도래지

용현계곡

● 리플렛 · 팜플렛 · 카다록 · 포스터 · 선거홍보물 외 각종 홍보물 ●

팔만대장경의 명성을
『서산인쇄공사』가 이어갑니다.

기획에서 인쇄 · 제본 · 접지 · 유통까지
전공정 시설 및 인력보유

우리나라 인쇄의 시초인 팔만대장경!
고려 고종 24년에 처음 제작된 팔만대장경은
수천만개의 글자가 하나같이 그 새김이 고르다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197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5년 전통의 **『서산인쇄공사』**가 그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산인쇄공사
서산시 읍내동 285-1번지 Tel. 041)664-0001~3 Fax. 041)666-2404
E-mail : ssprint0001@hanmail.net

우리 현실에 영웅은 없는가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임시정부수립일이 4월 13일이고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이 몇 일전에 지나갔다.

구국일념으로 생을 마감했던 많은 선열들을 생각하면서도 요즘들어 유독 안중근 의사의 의열 투쟁이 더욱 가슴저며옴을 느끼게 된다.

국내뿐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까지도 안중근 의사의 평화적 신념을 높이 평가해서 옥중저서인 "동양평화론"을 극구 칭송하고 있음은 실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안중근 의사는 국권을 침탈한 조국의 원흉이며 일본제국주의의 수뇌인 이토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살해함으로써 동양평화에 대한 신념을 몸으로 실천한 분이다.

서른한 살의 짧은 삶이었지만 그 뜨겁고도 구국일념의 충절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뜨거운 피가 느껴지는 듯하다.

조국을 사랑하고 평화를 갈구했던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은 백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에도 우리 모두의 정신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한 목숨이 이토록 숭고한 가치로 만고불변의 정신으로 승화된 예는 그리 흔한게 아닐진대 지금 우리의 자화상은 어떠한가.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자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반문해본다.

우리 민족의 치욕이었던 을사조약(을사늑약이라고도 함)을 두둔했던 친일파들은 매국노였음이 확실한데 그 당시엔 모두가 위정자들로서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탐관오리들이었을 것이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와 현실 속에서도 사리사욕 또는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영웅이나 의인을 찾기 힘든 지경이지만 그래도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는 안타까움을 몸을 던져 막아보고자 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현실을 보면 더욱 그러한 느낌이 온다. 을사조약의 원점환원이 되지 않음을 통탄하면서 유서를 쓰고 자결한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환이 남기신 한마디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릇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도리어 삶을 얻나니
나 민영환은 죽음으로써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이 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려 하노라.

한 국가나 사회 또는 단체가 공동체적 리듬을 가지려면 찬성과 반대가 어우러지고 강함과 약함이 구성되어야 하며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조차 판단치 못하는 자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납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백령도 앞바다의 해군함정의 침몰소식이 또다시 국민들을 울리고 있다. 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봄이 왔어도 봄을 느끼지 못함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일념이 진리 이상의 찬란한 경구가 되어 많은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길 바랄 뿐이다.

19世紀 海美 地方에서의 천주교 信俸

조　　광
(고려대학교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海美地方에의 천주교 전파와 박해
3. 丙寅敎難期의 海美
4. 맺음말

그러나, 해미지방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1866년의 기록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병인교난 때 해미에서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김선양 바오로와 박춘경은 해미 역말에서 살았다. 그리고 김 프란치스코와 최 야고보는 해미 삼지리에서 살았다.[27] 이렇듯 해미 관내의 역말이나 원벌에서는 다수의 신도들이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문이나 삼진리에서도 신도들의 존재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지방의 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승을 하직하던 신앙고백의 장소였던 해미는 이로써 1860년대에 이르러서 신도들의 구체적 삶이 전개되는 곳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미는 1866년에 시작된 병인교난(丙寅敎難)을 통해서도 종전보다 더욱 많은 수의 천주교도들이 처형된 순교의 땅이 되었다.

해미지방에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격렬하게 전개된 시기는 1866년부터 1868년까지 들 수 있다. 이 때 순교한 사람들을 『치명일기』『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등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해

27) 『치명일기』 715번, 708번, 704번, 705번, 700번, 706번
28) 이 표는 『치명일기』와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이 표의 '정리번호'는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의 정리번호를 뜻한다.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28)]

〈표 2〉와 『성책』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들 중 24명은 병인교난이 발생한 해인 1866년에 해미에서 순교했다. 그리고 이들 중 순교의 월일(月日)을 밝힐 수 있는 8인은 모두가 10월 이후에 순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866년 10월 이후부터 해미진영에서는 순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2〉 병인교난 당시 해미의 순교자 (1866~1868)

번	성 명	세례명	연령	거 주 지		순교일	순교형태	치명일기	정리번호
1	김경오					1866.	참수	711	
2	김백선			면천원마루		1866.		707	
3	김선양	바오로	57	해미역말	해미안우리	1866.10.11	교수	715	
4	강성연		56	면천		1868.4.		695	87
5	김순장		50's		해미미점촌			缺	39
6	김여집			공주진밧	해미	1866.	참수	710	
7	김여흥			공주진밧	해미	1866.	참수	709	
8	김영횡		55	공주진밧	해미	1867.3.		699	
9	김윤집		51	전라도	면천	1868.4.		1696	87
10	김정옥	파비아노		해미이문		1866.11.22		700	38,158
11	김춘겸		45	면천		1868.4.		694	
12	김	데레사						欠	70
13	김	라우렌시오						欠	161
14	김	스테파노	28	서산강당리		1866.	교수	688	120
15	김	프란치스코		해미 원벌		1866.		704	
16	김	프란치스코	61	덕산	해미역촌	1866.		欠	3
17	문	마리아	56				생매장	719	93
18	박춘경	프란치스코	28	영동		1868. 5. 23	교수	708	163
19	방명서		19	홍주			교수	682	120
20	방순기			면천				683	87
21	방순기의 아내		18	면천		〃		684 87	
22	박	바르바라	74	덕산신프런	덕산황모실	1868. 5.	옥사	717	93
23	박	바오로	36	홍주		1866.12.29	교수	?	81
24	박	요한	42	홍주원머리		1868. 5.23	생매장	716	81,93

번	성 명	세례명	연령	거 주 지		순교일	순교 형태	치명 일기	정리 번호
25	박	요한	40	홍주		1866.12.29	교수	72	81
26	방	마리아	35	덕산신프런	덕산황무실	1868. 5. 3	생매장	691	93
27	방	안토니오		덕산황무실		1866.11.12		690	154
28	손복록		38	홍주(?)			교수	689	86,157
29	손사중		47	홍주신리		1866.	교수		86,157
30	손치황	요한	60	강원도		1868.	교수		86,157
31	신	막달레나	28	덕산개산			교수	692	157
32	염사연			홍산구신		1866. 11.		缺	
33	임지량	에번시오		경기고초골	덕산개산	1867. 5.			27
34	유군심	시로	39	덕산	홍주대전골	1866.		702	162
35	유	시로	34	〃	신창	〃	교수	685	120
36	유시로의 처			공주청장리	〃			686	120
37	이군명	바오로		공주 진밧	해미 미점촌	1868. 4.		缺	39
38	이군박	에메렌시아	55		덕산 개야산	1866.		698	
39	이선경		55			1866.	참수	713	
40	이순백					1866.	참수	712	
41	이	마테오	34	면천		1868.	교수	693	157
42	이	에메렌시아	34	홍주 서면		1868. 4.	교수	687	120
43	조유진	가브리엘	21	홍주 신리	신창 창말	1866. 11.		697	87
44	정정심		51					714	
45	장안드레아의 처							缺	70
46	장마티아의 손부							缺	70
47	장마티아의 손부							缺	70
48	장마티아의 손부			농바위				缺	70
49	조	베로니카	18	해미원벌	해미 산진리	1868. 4.		缺	3
50	최	마리아				1866.		705	

· No. 6 김여흥(兄)과 No. 7 김여집(弟) 형제는 No. 1 김경오의 자
· No. 24 박요한(사위)과 No. 17 문마리아(장모)는 함께 생매장
· No. 15 김프란치스코는 No. 50 최마리아와 함께 순교
· No. 16 김프란치스코는 김대건 신부의 4촌
· No. 25 박요한과 No. 23 박바오로는 형제간
· No. 29 손사중은 No. 30 손요한의 당질
· No. 19 방명서와 No. 20 방순기는 형제
· No. 33 염지량 : 부자와 함께 피체 치명, 아들은 No. 32 염사연
· No. 42 이에메렌시아는 No. 35, No. 36 유시로 내외와 함께 체포(687)
· No. 43 조유진의 신분은 中人(697)

〈표 2〉와 『성책』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들 중 24명은 병인교난이 발생한 해인 1866년에 해미에서 순교했다. 그리고 이들 중 순교의 월일(月日)을 밝힐 수 있는 8인은 모두가 10월 이후에 순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866년 10월 이후부터 해미진영에서는 순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867년에는 모두 4명이 순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866년의 대규모 박해 이후 박해가 한 때 소강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그러나 1868년에 이르러 해미지방에서의 박해는 더욱 가속화했다. 이는 1868년 4월에 발생한 오페르트(Oppert)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1868년 4월과 5월에 걸쳐 해미에서는 39명의 신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29] 그리고 이들 가운데 1868년 4월 집단 처형된 농바우 출신 신도 26명 가운데 1인은 배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했다.[30] 또한 1868년 5월 3일과 5월 23일에는 신도들을 생매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배교자까지 처형하거나 신도들을 생매장하여 살해한 잔인한 방법이 등장한 것은 대원군의 생부(生父) 남연군(南延君)의 묘를 파괴하려 했던 오페르트 사건에 대한 보복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충도사학죄인성책(公忠道邪學罪人成册)』(이하 成册으로 약칭함)에는 1868년 4월과 5월에 해미현(海美縣) 및 해미진(海美鎭)에서 처형된 69명에 이르는 신도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31]

---

29) 〈표 2〉의 순교일자 참조.
30)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정리번호 87.
31) 이 명단은 검색의 편의를 위해 가나단 순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公忠道邪學罪人成册』 中 海美殉教者
(1) 1868. 4. 海美縣 斬首者 34名(男 14, 女 20)
· 海美 : 金初乭, 崔召史
· 沔川 : 金今得, 金連山, 金永命, 金才得, 金之先, 朴星化, 朴今得, 朴仁得,方巡己, 李奉誼, 李世達
李致連, 張巡得, 姜召史, 金召史, 金召史, 金召史, 朴召史, 朴召史, 朴召史, 方召史,方召史
宋召史, 李召史, 李召史, 李召史, 李召史, 鄭召史, 鄭召史, 趙召史, 崔召史, 黃召史
(2) 1868. 5. 海美鎭 斬首者 35名(男 11, 女 24)
· 洪州 : 朴致雲, 柳己尙, 金召史, 金召史, 文召史, 李召史
· 德山 : 金奉學, 朴元掘, 朴八甫, 宋京卜, 申卜實, 劉牙業, 韓道元, 金召史, 金召史, 金召史, 金召史
方召史, 廉召史, 劉召史, 李召史, 林召史, 韓召史
· 瑞山 : 李仁甲, 金召史　　· 新倉 : 高仁長, 金召史, 金召史, 金召史, 金召史, 朴召史, 白召史, 吳召史
· 沔川 : 金召史　　· 禮山 : 金召史

이황 (李滉)

1501(연산군 7)~1570(선조 3)

호는 퇴계(退溪), 본관 진보(眞寶), 예안(禮安)출신

1534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호조좌랑(戶曹佐郞) 등을 거쳐 1539년(중종 34) 형조좌랑으로서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를 겸직, 1542년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으며 이듬해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 1545년 을사사화(乙巳士禍)때 이 기에 의해 삭직당했다가 이어 사복시정(司僕寺正)이 되었고, 1552년 대사성에 재임되었고 형조, 병조 참의에 이어 1556년 부제학, 2년 후 공조참판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학자문신

1566년(명종 21) 공조판서에 올랐으며 예조판서, 우찬성을 거쳐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을 지내고 이듬해 고향에 은퇴, 학문과 교육에 전심했다. 이언적(李彦迪)의 주리설(主理說)을 계승, 성(誠)을 기본으로 하여 일생동안 경을 실천하고, 깊이 통찰하는 것을 학문의 기본자세로 삼았다.

우주의 현상을 이(理)를 보다 근원적으로 보아 주자(朱子)의 이기2원론(理氣二元論)을 발전시켰다. 그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즉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이에 따르는 것은 4단(端)이며, 기가 발하여 이가 기를 타는(乘) 것은 7정(情)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존재와 본질도 행동적인 면보다는 이념적인 면에서 추구하며 인간의 순수이성(純粹理性)은 절대선(絕對善)이며 여기에 따르는 것을 최고의 덕(德)으로 보았다. 그의 학풍은 뒤에 유성룡(柳成龍), 김성일(金誠一) 등에 의하여 계승되어 영남학파(嶺南學派)를 이루어, 이이(李珥)의 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호학파(畿湖學派)와 대립, 동서당쟁은 이 두 학파의 대립과도 관련되었으며 그의 학설은 임진왜란 후 일본에 소개되어 그 곳 유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스로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창설 후진 양성과 학문 연구에 힘썼고, 현실생활과 학문의 세계를 구분 하여 끝까지 학자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중종, 명종, 선조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으며 시문은 물론 글씨에도 뛰어났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안동의 도산서원등에 배향되었다.

[著書] 退溪全書, 陶山十二曲 等

영정개요

표준영정지정년도: 1974

제작작가 : 현초 이유태

영정크기 : 84X120(가로X세로cm표시)

소장지 및 소장인 : 한국은행

삼짇날이란?

삼월 삼짇날의 어원

음력 3월 3일을 삼월 삼짇날이라고 한다. 옛말에 '삼질'이라고도 하며, 한자로는 상사(上巳) · 원사(元巳) · 중삼(重三) · 상제(上除) · 답청절(踏靑節)이라고도 쓴다. 삼짇날은 삼(三)의 양(陽)이 겹친다는 의미이다. 최남선에 의하면 삼질은 삼일의 자음(字音)에서 변질되어 파생된 것이며, 상사는 삼월의 첫 뱀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삼월 삼짇날의 유래

삼짇날이 언제부터 유래하였는지 자세히 전하는 바는 없다. 최남선에 의하면 신라 이래로 이날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으며, 이 풍속은 조선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또 옛사람들은 3월의 첫 뱀날[巳日]을 상사(上巳)라 하여 명일(名日)로 여겼으나, 그후 상사일이 들쭉날쭉함을 불편히 여겨 마침내 3월 3일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삼월 삼짇날의 풍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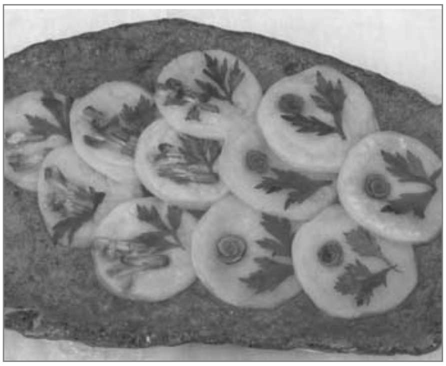
삼짇날은 봄을 알리는 명절이다. 이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며, 뱀이 동면에서 깨어나 나오기 시작하는 날이라고도 한다. 또한 나비나 새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경북 지방에서

는 이날 뱀을 보면 운수가 좋다고 하고, 또 흰나비를 보면 그해 상을 당하고 노랑나비를 보면 길하다고 한다. 이날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하며, 집안 수리를 한다. 아울러 농경제(農耕祭)를 행함으로써 풍년을 기원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풍속은 화전놀이이며, 사내 아이들은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불거나, 여자아이들은 풀을 뜯어 각시인형을 만들어 각시놀음을 즐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설날을 "삼가다[謹愼]" 또는"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인 "섦다"에서 그 어원을 찾기도 한다. 이는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愼日)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일이란 '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란 뜻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 질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 문에 인간의 모든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긴 말이다. 한편 설날은 원일(元日) · 원단(元旦) · 정조(正朝) · 세수(歲首), 세초(歲初) · 세시(歲時) · 연두(年 頭) · 연시(年始) 등의 한자어로도 불린다.

▮ 삼월 삼짇날의 시절음식

이날 각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시절음식을 즐긴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 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이날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 둥근 떡을 만들고, 또 그것을 화전(花煎)이라 한다. 또 진달래꽃을 녹두 가루에 반죽하여 만들기도 한다. 혹은 녹두로 국수를 만들기도 한다. 혹은 녹두가루에 붉은색 물을 들여 그것을 꿀물에 띄운 것을 수면(水麵)이 라고 하며 이것들은 시절음식으로 제상에도 오른다."라고 하여 화전과 국수를 시절음식으로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시절음식으로 흰떡을 하여 방울모양으로 만들어 속에 팥을 넣고, 떡에다 다섯가지 색 깔을 들여, 다섯개를 이어서 구슬을 꿴 것같이 하는데, 작은 것은 다섯개씩이고, 큰 것은 세개씩으로 하는데, 이것을 산떡이라고 한다. 또 찹쌀과 송기와 쑥을 넣은 고리떡이 있다. 또한 이날에 는 부드러운 쑥잎을 따서 찹쌀가루에 섞어 쪄서 떡을 만드는데, 이것을 쑥떡이라 한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http://www.nfm.go.kr)

고전 읽기의 즐거움

언젠가 짜라투스트라는 너무 역겨워서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전도된 불구자들을 만났다. 짜라투스트라의 눈에 비친 그들은 그저 하나의 '커다란 눈'이거나 '커다란 주둥이'일 뿐이었다. 하나를 너무 많이 가진 대신에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을 퇴화시켜버린 괴물들! 짜라투스트라가 만난 이 끔찍한 괴물들은,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다. 그것은 또한 다양성보다는 효율과 생산성에 눈 멀었던 지난 백년에 대한 경고였던 것이다.

고전(古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는 사실상 마땅한 대책이 없다. 그것은 고전이 어떤 것인지, 왜 읽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대답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원리를 아는 것이 매순간 숨을 쉬는 행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예컨대 고전이란 어떤 것이고 왜 읽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고전 독서를 의미있는 행위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물음을 바꿔보자. 사실상 우리가 고전을 통해 항상 물어야 하는 건 '무엇'이나 '왜'가 아니라, '어떻게'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원리가 아니라 용법이다. 기계에 비유해보자면, 이것은 고전이 어떤 기계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어떻게 써먹는 것인지 작동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고전을 읽으면서 옛날 선인들의 높은 도덕과 풍류에 감탄하고, 가슴에 새길 덕담(德談)을 확인하는 것은 고전이 지금의 나와는 거리가 먼 저기-딴세상의 일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고전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전은 아마도 이렇게 인식될 것이다. 삶의 고달픔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아포리즘! 특히 동양 고전의 경우, 한글세대인 현대인들에겐 외국어보다도 낯선 외계어(한자)들이 마구 등장하는 까닭에 거기에서 오늘날의 현재적 실감을 느끼기가 더욱 쉽지 않다. 단적으로 말해, 인(仁)이니 성(性)이니 예(禮)니 하는 말들을 지금 자신의 삶에 견주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이러한 무능력이 반드시 고전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고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고전을 내 삶에 써먹는 일이다. 고전은 과거에 남겨진 주옥같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곳에서 내 삶의 문제와 맞닥뜨리는 순간 탄생하는 특별한 화학작용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고전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책이다. 고전의 세계는 옛날-저기 저쪽의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응전하게 될 현재이자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다.

고전은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다. 고전은 앎과 삶이 일치하는 세계에 속해 있으며, 나로 하여금 현재와 대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텍스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위대한 텍스트는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를 찌르고, 흔들고, 불편하게 하고, 미궁으로 몰아넣는다. 바로 이러한 고통을 통해 고전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단단하게 높은 세계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전이 우리들의 관습과 정신을 적당히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행위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고전은 어느 순간 느닷없이 정수리를 갈기고 달아나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고전을 통해 발견하는 새로운 삶의 동력은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 권리를 빼앗아가는 어떤 폭력들에 있다.

이런 까닭에 고전의 세계로 통하는 문 앞에서 중요한 건 스스로 마음을 내는 일이다. 그 마음이란 두 가지면 충분하다. 누구에게라도 배우겠다는 낮은 마음[하심(下心)]과 언제라도 배우겠다는 꾸준한 마음[항심(恒心)]! 김홍도가 그린 서당 풍경을 떠올려보자. 거기에서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들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마주보는 자리에 놓여 있다. 이 관계는 스승과 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하다. 제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같은 위치에서 묻고 배운다. 배움이란 근본적으로 자기와 자기 주변의 관계들에 대해 스스로 열려 있는 배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배움터의 이러한 풍경은 교단과 교탁, 스승 외엔 동료의 뒷통수만 쳐다보게 되어있는 오늘날의 교실과 비교해볼 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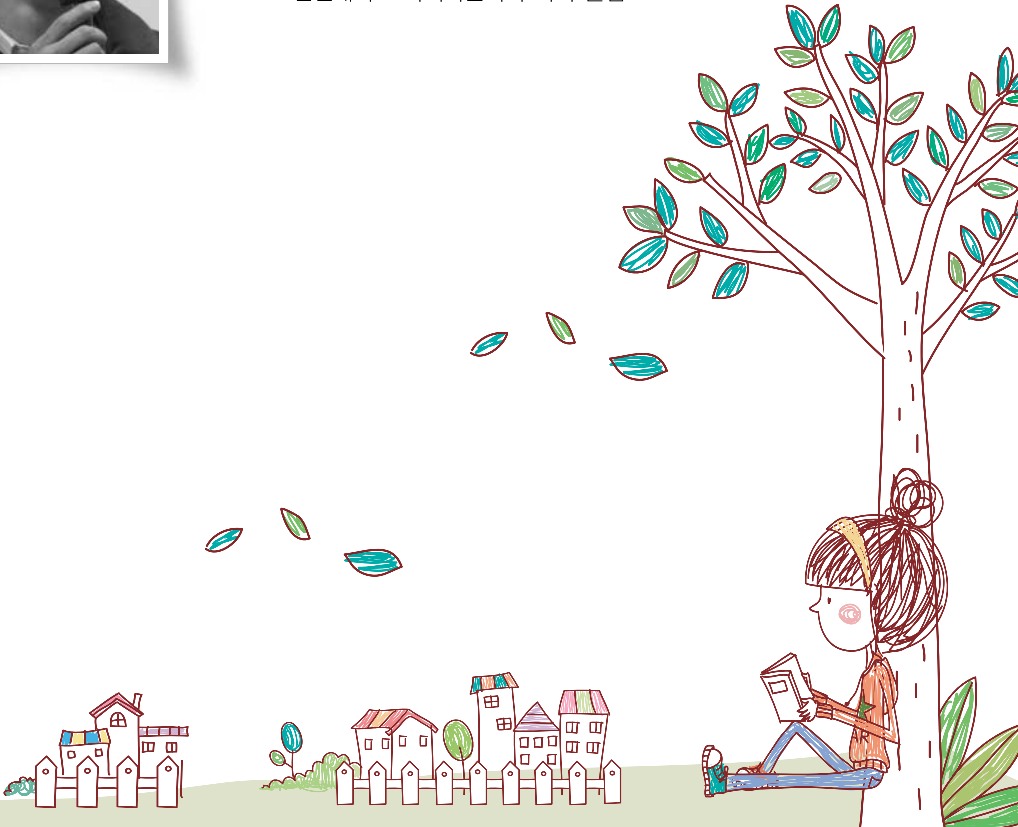
서로에게 얼굴을 돌리고, 고립되는 순간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커다란 귀'이거나 '하나의 단단한 팔뚝'만을 키우는 짜라투스트라의 괴물이 된다. 학문(學問)이란 말이 배움[學]과 물음[問]이 결합된 말임에 유의하자. 지금 내가 묻고 배우는 것이다.

고전이란 옛 것을 배우는 게 아니다. 지금의 과거는 곧 그 당시의 현재다. 우리의 현재는 미래의 과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 텍스트를 살아있는 진정한 고전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써먹는 지금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고전은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자신의 현재를 향해 묻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 물음으로써만 현재를 넘어가고, 일상 속에서 늘 배움의 관계들을 작동시키는 것! 우리는 그런 작품들을 고전이라 부른다. 아니 그런 작품들만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고전이 된다.

글쓴이 소개

문 성 환 (文聖煥)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한국의 대중음악

1945년 이후 2010년까지, 해방 이후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도 벌써 환갑을 훌쩍 넘어 고희(古稀)로 다가가고 있다. 벌써 그렇게 됐단 말인가, 하고 놀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동안 우리를 즐겁게 했던 음악들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세월의 기억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 한다.

▮1945-1960년대 : '양악' 의 유입

해방 이후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는 미 8군과 더불어 시작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대중음악은 외국 음악의 '유입' 또는 '이식' 으로 시작한다. 한국에 진주한 미군의 '구락부(클럽)' 에서 흘러나온 '재즈(당시 재즈는 유행음악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를 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음악에 눈을 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 8군 클럽에 뛰어들어 오디션을 받고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곧 클럽 바깥의 일반 무대에서도 공연을 하고 음반을 취입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그룹사운드' 의 시작이다. 키보이스, 신중현, 히 파이브 등 당대를 주름잡던 음악인들이 등장했으며, 김추자와 펄 시스터스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패티김, 현인, 이미자 등은 다른 한편에서 한국식 트로트의 원형을 완성시켰다.

▮1970년대 : 록 음악과 포크, 청년문화

1970년대를 대표하는 두 개의 장르는 록 음악과 포크다. 그리고 이 둘을 잇는 것은 바로 청년문화이며, 이 청년문화는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1970년대의 대중음악은 단지 음악 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신중현과 산울림 등의 록 음악은 한국 대중음악에 전에 없던 소리를 만들어냈으며, 김민기, 양병집, 한대수, 양희은 등은 미국 포크와는 다른 독특한 스타일의 포크 음악을 만들고 불렀다. 고고클럽과 통기타 클럽, 음악다방 등이 청년문화의 산실이 되었으며,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청춘을 불살랐다.

그러나 당시의 정권은 청년문화를 '퇴폐' 로 간주했고, 수많은 노래들을 '금지곡' 으로 지정했다. 1975년의 대마초 파동은 한국 대중음악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이후 록과 포크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대학가요제〉를 통해 스타가 된 수많은 캠퍼스 그룹사운드가 대표적인 예다.

▮1980-1990년대 : 조용필, 음악의 다양화, 아이돌과 인디 음악의 등장

1980년대 음악계는 조용필로 시작해서 조용필로 끝난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과장일지 모르겠으나, 조용필이 1980년대의 음악에 남긴 그림자는 그만큼 크고 거대하다. 그는 트로트, 록, 팝, 국악 등 가능한 모든 영역에 손을 댔고, 경이적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또한 1980년대는 나미와 김완선, 소방차, 박남정 등으로 대표되는 '댄스 가요' 가 음악계의 전면에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신서사이저와 드럼 머신 등의 새로운 기술적 발명품에 힘입어 만들어진 이러한 음악들은 당시의 청소년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더불어 '언더그라운드' 와 '다운타운' 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대학생 취향의 섬세한 포크와 블루스 음악이 유행했다. 들국화, 신촌블루스, 김현식, 어떤날 등의 뮤지션들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는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새로운 10대 문화가 음악계의 주류를 장악한 시기다. 록 음악이 간만에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고, 힙합과 랩 등의 새로운 음악이 한국 사회에 소개되었다. 이는 해외여행 자유화와 경제성장 등의 여건 속에서 '재미교포'들이 대중음악계에 뛰어든 것과도 관련이 있다. 10대 취향의 가수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획사'가 등장했고, 이러한 기획사들이 키워낸 H.O.T., 핑클, 젝스키스 등의 아이돌 그룹들이 10대의 '우상(idol)'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을 소개하는 TV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람회, 토이, 015B, 이소라 등의 '고급 발라드' 음악인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했으며, 재즈와 월드 뮤직이 크게 유행했다. 마지막으로,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의 클럽을 중심으로 펑크와 얼터너티브 록을 연주하는 인디 음악인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주류 가요, 방송 시스템과 거리를 두고 제작에서 녹음, 홍보까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냈다. 그러나 IMF 사태와 더불어 대중음악계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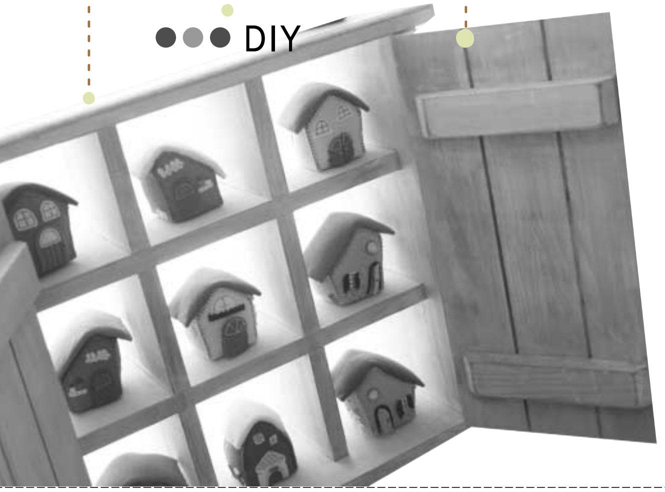
▮2000년대 -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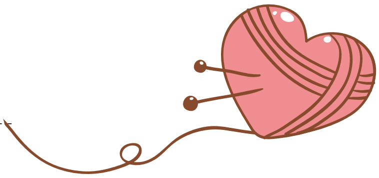
2000년대의 대중음악계는 기본적으로 1990년대 대중음악의 연장에 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음악 환경이 크게 변했는데, MP3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장에서 전통적인 매체였던 CD와 LP 등이 설 자리를 잃었고, 이에 많은 뮤지션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음악들이 창작되고 있다. 외국(정확히 말해 미국)의 유행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척해내는 경우가 많으며, 진취적인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미로운 결과들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해 볼만 하다.

글쓴이 소개

최 민 우

• 대중음악 평론가
• 대중음악웹진 [weiv](http://weiv.co.kr) 편집장





봄과 함께 시작하는 손바느질의 향연 '펠트공예'

펠트강사
장 옥 경

자꾸만 코 끝을 간질이는 봄바람 속에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하다.

햇빛이 살포시 닿는 창가에 앉아 한땀 두땀 꼬매어 가는 바느질. 바느질 속에는 여유가 있고 너그러운 마음씨도 있다.

손바느질로 하는 공예의 가운데 있는 펠트…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출산소품에서부터 생활소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이템이다.

펠트는 시접이 없이 쉽게 재단하고 바느질 할 수 있는 편리성으로 많은 대중들 앞에 서고 있다. 펠트라고 하면 '그거 부직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펠트원단은 부직포와는 좀 다르다.

부직포는 여러가지 섬유를 합쳐 화학적인 압력으로 누른 것이라고 한다면 펠트는 오직 모섬유의 축융성을 이용해 압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며 아이들 장난감을 만들어 물고 빨아도 안전하다.

처음 펠트가 생겼을 때에는 주로 아이들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라 이해되었으나 요즘은 펠트가 많이 다양화되어 어린이 교구나 장난감, 태교용품, 가방, 실내화, 지갑, 필통, 장식용 소품 등등 생활 소품까지 바느질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게 되었다.

그 시발점에는 보다 기능화된 펠트에 있었으니, 보풀이 덜 일어나게 가공된 보풀 방지 펠트라든지,

펠트작품들

일러스트가 나염된 프린팅펠트, 바닥용으로 많이 쓰이는 미끄럼방지 펠트, 인형류에 주로 쓰는 소프트와 교구와 장난감을 많이 만드는 하드펠트, 두꺼운 멜란지, 바늘로 콕콕 쑤시거나 주물러 완성되는 양모펠트 등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만들어진 기능성 펠트 덕분에 감칠맛 나는 작품의 세계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더군다나 어려운 기법을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이 없고, 버튼홀, 아플리케, 홈질, 박음질, 공그르지 정도의 바느질법만 알면 어떤 작품이든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공예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즘은 초등학생 이상 학생들의 집중력과 끈기 훈련에도 펠트가 즐거움과 효과 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임산부의 태교에도 아이가 사용할 모빌이나 장난감 등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출산을 준비하기도 한다. 또한 펠트와 패브릭, 나무소품 등과의 접합으로 더욱 새련되고 예쁜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으니, 펠트에 관심있고 바느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펠트 한장으로 한땀한땀 정성껏 만들어가는 작품, 그 안엔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 내 아이를 위한 장난감으로, 우리집을 꾸며줄 소품으로 변신할 준비는 되어 있다.

쉽고 즐거운 바느질, 펠트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는 봄을 맞이하는 건 어떨까?

마패 [馬牌]

서산시문화관광해설사 김 재 신

인기리에 방영된 사극 추노(追奴)에서 서로 마패를 들이대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아이들이 마패에 대해 물어본다. 그래서 이참에 마패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하여 정리해 본다.

마패의 연혁은 고려시대 역참제(譯站制)와 파발제(擺撥制)에 의한 통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규제를 위하여 마패제(馬牌制)가 실시된 것이다. 또한 마패를 발마패(發馬覇)라고도 불렀다.

고려 원종 때에 포마법(鋪馬法)을 실시하면서 구체화되었으며 충렬왕2年(1276년)에는 포마차 자색(鋪馬箚子色)을 설치하였다. 여기서 포마차 자색이란 말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허가증인 포마차자를 발행하는 곳이다.

이 제도는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1410년(태종 10年)에 포마기발법(鋪馬起撥法)으로 발전하였고 1414년에 마패발급이 공역서인(供驛署印) 대신에 병조 관할에 있는 상서원에서 발급하는 마패를 사용하게 되었다.

마패법은 그 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즉, 역제를 운영하면서 병마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말수로 규정했다.

역마를 지급하는 경우는 공무를 수행하는 관원, 전사자우송, 공물수납, 보고서 우송 등인데 이때 증명으로 마패를 사용하게 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관찰사나 병마사가 부임할 때 일정수의 마패를 받아 필요할 때 사용하게 했다.

마패는 재료에 따라 목조마패, 철제마패, 동제마패로 구분되었는데 조선초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나 파손이 심해 1434년(세종16년) 2월에 재료가 철로 바뀌었고 세조때 〈경국대전〉에서는 구리로 만들게 됐다.

마패는 지름이 10cm정도 되는 원형으로 앞면에는 자호(字號)와 연호, 연월, 일과 상서원인(尙瑞院印)이라 새기고 뒷면에는 말 모양을 새겼다.

말 수는 등급에 따라 다른데 1~5마패가 있었다. 또한 대비전, 중중궁, 동궁등 궁궐의 각전(各殿)에서도 마패를 보유했는데 이것은 산유자(山柚子)로 만들었으며 1~10마패가 있었다.

마패의 발급절차는 의정부에서 병조에 발급 신청을 하면 병조에서 기마문자(起馬文字), 즉 마문(馬文)을 주고, 출사(出使)하는 관원은 승정원에 나아가서 마패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의하면 중앙의 경우 병조에서 등급에 따라 증서를 받으면 상서원이 왕에게 보고한 후 마패를 발급하게 했다고 한다.

마패를 파손한 사람은 장 80대에 강제노역 2년의 형에 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마가 사사로이 이용 되었으며 마패 운영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암행어사에게 지급된 마패는 어사가 인장 대용으로 사용하였고 어사출두 때는 역졸이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크게 외쳤다.

암행어사의 마패는 파견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승정원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암행어사 파견 때 지급했다. 암행어사는 2마패를 주로 사용했다.

조선후기 상하이(上海)에서 김옥균(金玉均)을 살해 하고 돌아온 자객(刺客) 홍종우(洪鍾宇)가 전북 순창에서 의병장 최익현(崔益鉉)의 마패를 훔쳐 서울까지 도망쳤던 일은 마패에 얽힌 최후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참고문헌 : 백과사전

『흙빛문학회』

흙빛문학회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학단체 중 하나이다. 흙빛문학회 회장 김인옥 선생을 통해 문학의 향기와 앞으로의 흙빛문학회에 대해 들어보았다.

Q 흙빛문학회의 창립동기와 역사, 회원 등이 궁금합니다.

A 흙빛문학회는 1981년 지역의 몇몇 문학인들이 모여 지방문학의 발전과 문학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창립된 순수문학단체입니다. 그 후 여러 차례 회동을 거쳐 1983년 〈흙빛문학〉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반년간지 형태로 〈흙빛문학〉이 발간되고 있으며 현재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여러 장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주로 무슨 활동을 하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A 흙빛문학회의 활동목적은 문학적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문학의 정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매년 두 차례 동인지를 발간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흙빛 청소년 문학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 문인들을 초청하여 문학강연회를 함께 갖고 있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흙빛 청소년 백일장〉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흙빛문학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Q 서산에도 여러 문학단체들이 있는데 흙빛문학회만의 특징과 매력은 무엇일까요?

A 흙빛문학회는 우리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립된 문학단체로써 활발한 창작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한 문인들만 해도 150여 분이 넘습니다. 현재 매년 또는 반년간지로 발간되

는 것을 감안하면 지령 50호를 넘긴 문학동인 그룹이 전국에서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로지 한 길, 순수문학정신을 지키고 이어온 흙빛문학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흙빛문학50호 출판기념회〉

Q 문학에는 시, 소설, 비평 등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해야 하나요?

A 문학은 어떤 장르를 막론하고 모두 사람들의 이야기, 즉 삶을 노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학을 처음 접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장르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문학은 어떤 장르를 선택해야 하느냐보다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장르 선택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흙빛 청소년 문화캠프〉

Q 일반인들이 글씨기에 도전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A 모든 사람들은 다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삶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고 소설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일상속에서 문학이 갖는 의미,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문학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문학에는 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깊이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나아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문학적 경험을 통해 잠시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문학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Q 앞으로 흙빛문학회의 포부와 희망사항은 무엇입니까?

A 흙빛문학회는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문학의 사랑방에 모여 시를 엮고 수필을 꼬며 소박한 웃음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흙빛문학회는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껏 걸어왔던 길을 기억하며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길의 중심에 〈흙빛문학〉이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구산사

홍성문화원장
전 용 택

구산사는 고려 수절신(守節臣) 담양田씨 삼은(三隱 야은, 뇌은, 경은) 선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고려말 나라가 기울자 충신들은 두문동 또는 초야로 숨었다. 두문동(杜門洞)사건 이후 360여년 지나 영조 36년(1760년)에야 개성에 두문동 72현의 제단이 세워져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우리 후손과 호서지방의 선비들(이운명, 김우근 등)이 합세하여 삼은(三隱)의 높은 뜻도 기려야한다는 상소문을 철종에게 올렸고 윤허가 내리자 1858년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굴목마을에 목조 사당(8평)을 건립하고 매년 10월1일(음력) 제향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구산사까지도 훼철되고 위패만 땅에 매안(埋安)된 채로 종친들이 관리해 오다 1920년 전후에 단각을 건립하여 제를 올려왔다. 그리하다 1차로 1986년 11월에 정전과 내삼문이 세워 졌고, 2차 중건으로 1993년에 서재(西齋), 외삼문(外三門), 사직사(司直舍)등이 세워졌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4년에 동재(東齋)와 석재공사까지 끝나 오늘에 이른다. 2009년부터는 결성향교 유림과 후손 합동으로 매년 10월 1일(음력) 제향을 올리고 있다.

구산사는 홍성읍과 서해고속도로 홍성IC 중간에 있는 해발 274m 보개산 서쪽 기슭에 오목한 야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중앙 언덕 위에 위치하여 아늑하고 경관이 수려한 명당 터에 자리하고 있다. 행정명은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굴목마을이다. 이 마을은 '홍성 거북이 마을' 로 알려져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 로 지정되어 정돈이 잘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학생, 중고등학생, 기타 단체에서 한국 전통의식이나 예절교육 시범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거나 관광코스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 방문객이 많다.

또한 이 마을에는 약천 남구만(南九萬)이 어릴 때 글을 읽던 초당이 있다. 그의 본가는 초당 바로 옆자리에 있었으나 현재는 소실되어 없고 초당(草堂)만이 복원되어 있다. 약천은 1629년 굴목

마을에서 태어나 효종 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다. 소론의 거두였던 그는 희빈 장씨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될 당시 이를 반대하다 노론파에 밀려 강원도 동해시 심곡리로 유배되었다. 그의 유배지나 말년에 살던 곳(경기도 용인시 갈담리)에는 사당이 있으나 그의 출생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자녀와 함께 약천초당에 들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으로 시작되는 그 분의 시조를 한 번 더 읊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田씨 집성촌 형성과 때를 같이하는 수령 600여년의 느티나무 밑 정자에 앉아 삼은 선조 등 조상의 업적을 자녀와 함께 알아보거나 시골마을의 정취를 음미해 보는 일도 구산사 여행의 묘미이다.

○ 조응식 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98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응식 가옥(우화정)은 장곡면 산성리에 위치해 있다. 이 집은 양주 조씨의 종갓집이다. 인조대왕의 왕후였던 조대비가 바로 이 집 출생이고 이후로도 정승이 여섯이나 나온 명문가다. 현재의 주인인 조환웅씨가 12대 장손으로 40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다.

우화정은 전형적인 호서지방의 가옥구조를 가지고 있다. 二자형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되는데 안채는 다시 ㄱ자로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본채동 아래쪽으로 또 한 구역의 가옥들이 배치되어 있다. 즉, 행랑채와 사랑채 안채가 三자의 형태를 취하고 아래쪽에 또 하나의 二자형 집들이 서 있는 형태다.

솟을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가 나오고 우측의 일각대문을 또 넘어야 안채에 닿는다. 이 집에서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곳은 사랑채다. 이곳과 정면의 행랑채에서 주로 고택체험과 민박이 이루어지기하며 우화정이라는 이름과 내력이 모두 사랑채에 남아 있다.

사랑채 오른쪽에 앞쪽으로 내민 개방공간에 우화정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는데 이는 조선영조때의 문신이자 서예가였던 자하 신위 선생이 직접 글을 써서 달아준 것이다. 그리고 우화정 현판 아래의 벽면에는 천하태평이라는 문구와 태극 궤가 함께 그려져 있다. 우화정은 주변경관과도 아주 잘 어울린다. 집 뒤로 수백년 된 노송들이 수 십 그루 서 있고 나무 사이로 학성산까지 산책로가 나 있다. 집 앞의 작은 동산에도 송림이 울창해 삼림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이며 좀더 안쪽에는 활엽수림이 넓게 분포해 있다.

계룡산 도자예술촌

계룡산 도자예술촌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에 위치한 도예마을로 조선조 철화분청사기의 전통의 맥을 잇는 전국 유일한 도예촌이다

계룡산도예촌의 설립은 1991년 9월, 대전(공주) 도예가협회 창립전시회에 참가한 11인의 도예가와 도자재료연구회인 도연회가 도예촌 설립에 관한 좌담을 갖으며 시작하였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룡산도자예술촌 설립계획"을 추진하였고 곧 충남도청에 제안, 이후 공주군청(현,시청)이 주무 관청으로 지정되며 도예촌 설립에 협조하게 되었다. 1993년 3,4월 토목공사을 시작하여 5월부터 점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순수한 도예가로 구성된 도예촌이 설립되었다.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의 현대적 복원과 함께 작가의 작업공방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역 도자문화의 발전에 앞장선 대표적인 특성화 구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 명칭의 유래

상신리는 계룡산 북쪽에 위치하며 계룡산 전설지로 유명한 곳이다. "계룡산 도자예술촌"은 계룡산 지명과 도예 집성촌의 합성어로 고유명사가 되었다. 약칭으로는 '계룡산도예촌' 이라 부른다.

오래 전부터 인근에 있는 반포면 학봉리 일대를 윗사기골이라 하고, 온천리 일대를 아래사기골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도자를 생산하였던 곳으로『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世宗實錄」卷

149에 동학동으로 표기된 유서 깊은 곳이다. 현재 도예촌 위치는 원래 지명이 상신리 '느랭이' 와 '똥아리' 인 두 곳을 합쳐 만들어졌으나 계룡산도예촌 명칭이 일반화되고 있다.

▎현 황

계룡산 도예촌에 들어서면 곧바로 종합전시장이 있고 좌, 우로 손수지은 작가공방이 나열되어 있다.

종합전시장의 역할은 각공방의 작품을 함께 모아둔 곳으로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작가별 개성이 다른 작품을 비교하며 구입할 수 있으며 월별로 다른 주제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계절별로 판매되는 현황이 다르며 한쪽 면에는 차를 판매하고 있어 즐겨 찾는 이들이 많다.

(개인공방)

(도예촌 전시장)

작가공방은 개인별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르게 지어져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건축물도 다르듯 작가의 개성과 작품성향이 달라 같은 분청사기 작업을 하여도 볼거리가 즐비하다. 개인공방에서는 1가구 1전시장을 갖춰 작가가 만든 작품을 직접 설명 들을 수 있다.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즉석에서 구하고 또한 주문도 할 수 있다.

(축제행사장)

작품 감상은 작가에 따라 감성적이고 부드럽거나 또는 거칠고 투박한 질감, 새로운 기법을 응용한 작품, 작품의 스타일, 스케일, 학문적 연구, 쓰임에 대한 실용성, 작품의 응용력 등을 세밀히 보면서 좋아하는 작품을 구하면 된다.

도예촌의 중심에 있는 운동장은 쉼터와 놀이터, 나들이 가족에게는 가족오락 장소와 주차장 등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계룡산 도예촌은 전국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다른 도예촌과는 달리,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국내 첫 번째 도예촌이다. 이 후에 생긴 도예촌의 모델이 되어 장 · 단점을 제시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열악한 사정으로 시작하여 조화롭지 못한 건축물과 전무한 조경은 방문객으로부터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으며 오랜 과제로 남겨져 있고 넉넉지 못한 부지평수는 도예가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재래식 전통가마를 지울 수 없어 가마 소성의 한계를 극복치 못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주변의 여건을 반증하듯 도예축제와 계룡산분청사기 작가전, 해외교류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 등 작가의 개인별 영역을 넓히며 많은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며 전국적으로 철화분청사기의 호감도가 급증하고 학술적, 작품의 질적이나 양적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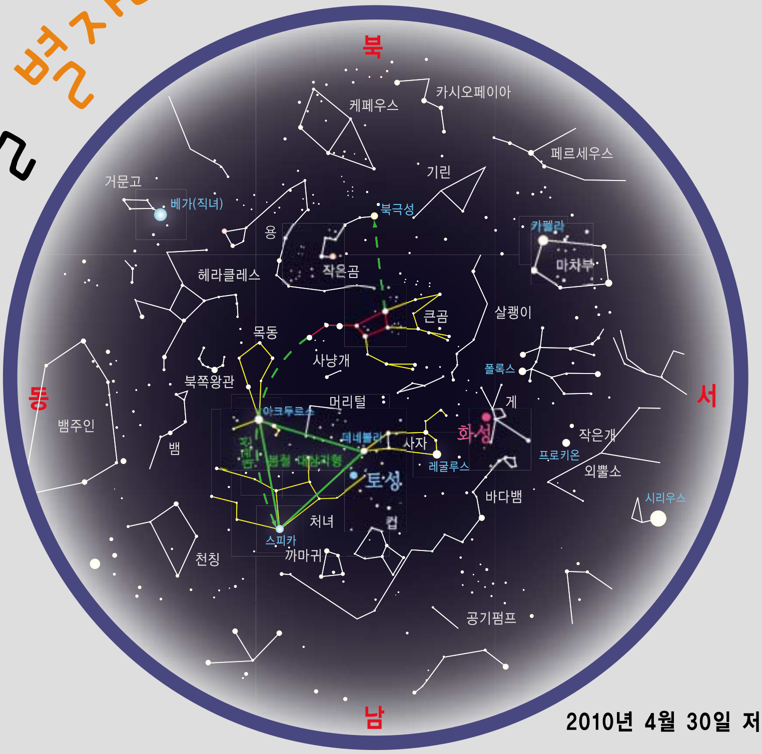
상신리 마을은 전통문화을 지키는 공주의 우수마을로 알려지며 대동제 대보름행사, 산신제, 장승깍기, 달집태우기 등 젊은 풍악단이 마을의 흥을 돋구고 있다. 더불어 공주시의 정책사업인 5도2촌 마을로 지정되어 연극, 마당놀이패가 마을에 상주하고 있다.

마을 중앙에는 근대부터 지속되어온 단전호흡 연정원있는데 수련하는 이들의 장소이다. 이를 계기로 마을주민이 된 사람도 꽤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수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정신수련하는 이들에게는 잘 알려진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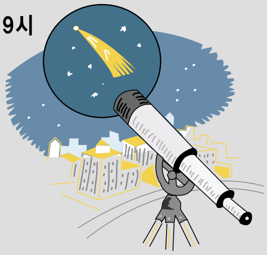
이러한 상신리 주변환경과 어울려있는 도예촌은 공주를 대표하는 명승지겸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뿌리내리고 있다.

주　　소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도예촌길 71-3
전　　화 : 041) 857-4072
면　　적 : 5,200평
총 인 구 : 18명
가 구 수 : 14가구

봄철 밤하늘 별자리



2010년 4월 30일 저녁 9시



오늘밤 하늘에 무엇이 보일까요?

따뜻한 기운으로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 봄이 왔다. 추위가 서서히 물러나고 산이나 들녘에도 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진다. 물론 밤하늘에도 봄이 왔다. 따뜻한 기운에 밤하늘 곳곳에서는 겨울 내내 숨어 있던 동물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봄철 밤하늘을 채우고 있는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1. 사자자리 LEO (Leo)

봄철에 가장 먼저 보이는 별자리는 백수의 왕, 사자이다.

사자자리는 좌우가 바뀐 물음표(?) 또는 후크선장의 갈고리를 생각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갈고리 부분은 사자의 얼굴에 해당되며 갈고리 끝 부분의 1등성 '레굴루스'는 사자의 앞가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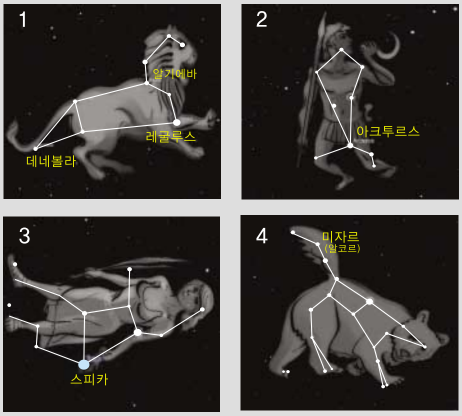
된다. 뒤로 몸통이 있으며, 꼬리 끝에 해당되는 밝은 별은 '데네볼라' 이다. 또한 사자자리의 앞과 뒤쪽에는 반짝이는 두 개의 천체를 볼 수 있다. 사자자리 앞쪽의 게자리에 위치한 붉은색을 띠는 천체는 화성이며, 사자자리 뒤쪽에 위치한 천체는 토성이다.

화성과 토성을 봄철 밤하늘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별똥별이 변하여 된 황금사자로 성격이 포악하여 네메아 계곡에 살며 주민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헤라클레스에게 죽게 되고 헤라클레스의 12모험 중 첫 번째 기념물로서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신화의 그림 속에서 헤라클레스가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황금사자의 가죽이다.

2. 처녀자리 *VIRGO (Vir)*

사자자리 뒤를 이어서는 아름다운 처녀자리가 있다. 처녀자리의 가장 밝은 1등성인 청백색의 스피카가 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하얗고 아름답기에 스피카는 순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스피카는 표면 온도가 2만도가 넘는 무시무시하게 뜨거운 별이다. (참고로 태양의 표면온도는 6천도이다.) 처녀자리는 그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기는 쉽지 않다. 밝은 별만을 이어보면, 스피카를 끝으로 하는 커다란 Y자 모양을 찾을 수 있다. 이 Y자를 중심으로 한 손에 보리이삭을 들고 있는 처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1. 사자자리
2. 목동자리
3. 처녀자리
4. 큰곰자리

※ 이미지 출처 : 스텔라리움(stellarium) 캡쳐

땅의 여신인 데메테르(Demeter)의 딸 페르세포네(Persephone)가 왼손에 보리 이삭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페르세포네는 저승의 지배자인 하데스(Hades)에게 납치되어 저승의 여왕이 되었으나 데메테르의 간청으로 일 년의 반은 저승에서 나머지는 지상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봄에 동쪽 하늘에 처녀자리가 떠오르는 모습이 바로 페르세포네가 저승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한다.

3. 목동자리 *BOOTES (Boo)*

사자자리의 꼬리별 '데네볼라' 와 처녀자리의 '스피카' 를 이어 커다란 삼각형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밝은 별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목동자리의 아크투르스이다. 목동자리는 사람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야구방망이를 닮았다. 아크투르스를 방망이의 끝으로 생각하고 위쪽으로 길쭉한 야구방망이 또는 도깨비 방망이를 상상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소가 끄는 쟁기를 발명하여 농사일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한 아르카스(Arcass)의 별자리라고

전해진다. 아르카스는 제우스신과 칼리스토(Callisto, 큰곰자리의 주인공)의 아들로 아르카디아(Arcadia)의 왕 되었으며 사냥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4. 큰곰자리 Ursa Major (UMa)

큰곰자리는 북쪽하늘에서 볼 수 있는 하늘에서 3번째로 커다란 별자리이다. 큰곰자리의 일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두칠성이다. 봄철 북두칠성은 북동쪽 하늘에서 찾을 수 있다. 국자 머리 부분이 큰곰의 허리와 엉덩이에 해당되고, 손잡이가 곰의 꼬리에 해당된다. 그 주변으로 몇 개의 별들을 찾아보면 북쪽하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큰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큰곰자리는 칼리스토가 헤라의 저주를 받아 곰으로 변한 모습이라고 한다.

5. 그 외의 봄철 별자리들

봄철에는 이들 주요 별자리 사이사이에서 작은 별자리들을 찾을 수 있다.

목동자리의 왼쪽에는 반구형 모양의 북쪽왕관자리를 찾을 수 있다. 가운데 '겜마' 라는 별을 중심으로 좌우에 별들이 반구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왕관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목동자리의 오른쪽에는 사냥개자리가 있다. 하지만 이 별자리의 가장 밝은 별이 4등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사자자리 앞쪽에는 작은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게자리가 있다. 하지만 게자리 보다는 이 작은 사각형 안에 위치한 성단이 더 유명하다. 프레세페 산개성단(M44)이라 부르며, 때론 벌집성단이라 부르기도 한다.

처녀자리 남쪽으로는 마름모꼴의 까마귀자리와 그 옆에 컵자리가 있으며, 그 아래로는 남쪽 지평선을 길게 차지하고 있는 바다뱀자리가 있다. 바다뱀자리는 전체 88개의 별자리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별자리이다.

6. 봄철의 도형 찾기

각 계절에는 밤하늘 별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도형들이 있다. 봄에는 커다란 대곡선과 봄철 대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대곡선은 북두칠성의 손잡이를 따라 남쪽으로 이어가면 목동자리의 아크투르스를 만나게 되고 이어서 처녀자리의 스피카에 도달하게 된다.

봄철의 대삼각형의 꼭짓점을 이루는 세별은 사자자리의 데네볼라, 처녀자리의 스피카, 목동자리의 아크투르스이다.

밤하늘에서 대곡선과 삼각형을 그려보며, 다양한 모양과 별자리를 그려보길 바란다.

출처 :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소식지 "류별"

제12회 청소년문학제 개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학적 정서함양을 위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0년 4월 10일(토) 10:00 ~ 13:00
- 장 소 : 서산문화원 일대
- 대 상 : 서산관내 초 · 중 · 고등학생
- 부 문 : 운문, 산문
- 시 상 : 5월 중

가족문화유적답사 <전통문화 나들이> 참여자 모집

가족과의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즐거운 추억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전통문화 나들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답 사 일 : 2010년 5월 2일(일) 오전 7:50 출발
- 장 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당, 백남준아트센터
- 대 상 : 서산문화원 회원 및 서산시민
- 참가인원 : 40명 선착순
- 참 가 비 : 1인당 5,000원(점심 및 관람료 포함)-성인, 아동 구분없음
- 신 청 일 : 2010년 4월 26 ~ 27일(서산문화원 회원 우선접수)
- 준비사항 : 간편한 복장, 개인간식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산문화원 사무국)

충남도지사배민속대제전 출전선수 모집

제20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행사에 참여할 출전선수를 모집합니다. 서산시의 대표선수로 활약할 서산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회명칭 : 제20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 대회방법 : 충남 16개 시 · 군 대항전 (토너먼트)
- 일 시 : 2010년 5월 14일(금) 09:30 부터
- 장 소 : 천안삼거리 공원
- 경기종목 : 씨름, 줄다리기, 줄넘기, 힘자랑, 제기차기, 널뛰기
- 모집종목 : 6개 경기종목 중 5종
  (줄다리기, 줄넘기, 힘자랑, 제기차기, 널뛰기)

※자세한 출전기준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산문화원 669-5050)

시 | 정 | 소 | 식

서산 천수만, '한국형 생태관광모델'에 선정

친환경 에코시티(ECO-City)를 지향하는 충남 서산시의 천수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형 생태관광모델' 10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

서산시는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자원을 활용해 우리 고유의 생태관광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한국형 생태관광모델사업 대상지로 천수만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선정작업은 생태자원의 보전가치와 매력도, 인프라 구축현황, 지역주민 참여도 등 6개 지표 15개 평가항목을 적용해 환경보전 및 관광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지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천수만은 큰고니, 흑두루미,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300여종 400여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세계적 철새도래지로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자원보존과 생태관광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천수만생태공원화사업은 물론 바이오 · 웰빙특구 조성사업, 간월호관광도로 개설사업 등 천수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생태관광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한국형 생태관광모델' 10곳에는 서산시 천수만을 비롯해 태안군의 신두리 사구, 창녕군의 우포늪, 파주시와 화천군의 비무장지대, 순천시의 해안습지, 영주시의 소백산자락, 진안군의 데미샘과 마실길, 평창군의 마하생태관광지와 백룡동굴, 제주도 거문오름과 서귀포생물권보전지역 등이 포함됐다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윤태금 (서산시 석남동) 2,000원
- 임갑순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김의식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류영환 (서산시 부석면) 30,000원
- 유태숙 (태안군 태안읍) 2,000원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이만규 (태안군 태안읍) 50,000원
- 남현우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조육봉 (서산시 운산면) 10,000원
- 김영건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김홍경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류영동(서산시 예천동) 10,000원
- 정두영 (서산시 석림동) 30,000원
- 이낭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임선재 (서산시 석림동) 120,000원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김시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이융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김보성 (대전광역시중구) 100,000원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최길학 (서산시 읍내동) 480,000원
- 김수경 (서산시 동문동) 240,000원
- 이융조 (충북 청주시) 30,000원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값지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